MBC 김재철 사장 구속수사 촉구 청원 서명부

MBC 노동조합은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이 정권에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행태를 보인데 항의하며 지난 1월 30일부터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김재철 사장의 개인비리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

김재철 사장은 특급 호텔과 백화점, 귀금속 가게, 여성용 화장품 가게 등에서 회사 카드로 2년 동안 7억 원을 사용했습니다. 한 달에 3천만 원, 하루 1백만 원 꼴입니다. 또 개인적 친분이 있는 무용가 J씨에게 7년 동안 공연을 몰아주고 협찬금 20억 원 이상을 밀어주었습니다. 심지어 사기 전과자로 자질이 의심스러운 J씨의 친오빠까지 '해외 지사장'으로 특별채용해 3천만 원 넘게 지원했습니다. 최근에는 김 사장이 J씨와 함께 사촌 오누이 행세를 하며 개발 호재가 있던 충북 오송 지역의 아파트 석 채를 함께 구입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.

MBC 노동조합은 김재철 사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, 수사기관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. 김재철 사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이 청원서는 수사기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. 취지에 동감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.

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

MBC 김재철 사장 구속수사 촉구 청원 서명부

	성 명	연 락 처	주 소	서 명
1				
2				
3				
4				
5				
6				
7				
8				
9				
10				
11				
12				
13				
14				
15				
16				
17				
18				
19				
20				
21				
22				
23				
24				
25				